

**당신의 인생이 빛나는 순간! 뮤지컬 <맘마미아!>** 가

**2016년 2월 24일부터 6월 4일**까지 **샤롯데씨어터**에서 공연된다.

**IT’S SHOWTIME! 뮤지컬 <맘마미아!>**

**기다림은 끝났다! 이제는 모두가 <맘마미아!> 와 함께 행복해질 순간!**

2004년 한국 초연 이후 서울 포함 33개 도시, 1,400여회 공연, 170만 관객을 동원한 뮤지컬 <맘마미아!>가 2016년, 또 한번 대한민국에 ‘맘마미아! 新바람’을 불어넣는다. 2013-14년 오리지널 팀 내한 공연 이후 3년 만에 공연 될 뮤지컬 <맘마미아!> 는 더 강력해진 캐스팅과 짜임새 있는 구성을 기반으로 한층 업그레이드 된 재미와 감동으로 관객을 찾아간다.

**이보다 더 화려할 순 없다! 오디션을 통해 선발된 강력하고, 새로워진 캐스팅!**

지난 해 6월, 18세부터 55세까지 전 세대를 아우른 1,200여명의 지원자들이 2016년 뮤지컬 <맘마미아!> 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펼쳤다. 누구도 예외가 없었던 이번 오디션에는 최고의 공연을 보여주었던 원년 멤버와 차세대 <맘마미아!> 주인공이 될 실력파 배우들이 선발되어 2016년 뮤지컬 <맘마미아!> 를 더욱더 기대하게 만들었다. **최정원, 신영숙 (도나), 전수경, 김영주 (타냐), 이경미, 홍지민 (로지), 남경주, 성기윤 (샘), 이현우, 정의욱 (해리), 오세준, 호산 (빌), 박지연, 소녀시대 서현, 김금나 (소피), 심건우 (스카이) 등 37명의 배우는 더욱 강력한 에너지의 <맘마미아!> 를 선사할 것이다.**

**대한민국 뮤지컬 역사를 새로 쓴, 뮤지컬 <맘마미아!>**

**블루오션! 대한민국 중·장년 관객을 극장으로 끌어오다!** 뮤지컬 <맘마미아!>는 중·장년층의 대표 향유물이었던 아바 (ABBA)의 음악이 모녀의 사랑, 친구와의 우정, 그리고 남녀간의 사랑 등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스토리에 완벽하게 엮여 있다. 그 결과 <맘마미아!>는 치열했던 젊은 시절 아바 (ABBA)의 음악으로 위로 받았던 이들이 어느새 중.장년이 되어 공연장에서 과거를 추억하고, 현재를 즐기는 문화 트렌드를 만들어냈다.

**한국 뮤지컬 역사상 가장 많은 지역에서 공연된 뮤지컬!** 2005년 대구에서 한국 지방공연 역사상 최초, 최장기 공연을 성공적으로 치른 뮤지컬 <맘마미아!> 는 2010년 5월부터 1년간 23개 도시에서 202회 공연을, 2012년 3월부터 1년간 21개 도시에서 128회 공연을 진행하였다. 이렇게 뮤지컬 <맘마미아!> 는 대한민국 방방곡곡을 누비며 대한민국 국민이 사랑하는 뮤지컬로 명성을 높였다.

**세계 속 뮤지컬 <맘마미아!>**

**뮤지컬 역사상 가장 빠르게 전 세계로 퍼진 뮤지컬**

뮤지컬 <맘마미아!> 는 세계적인 팝 그룹 아바 (ABBA)의 히트곡 22곡을 엮은 쥬크박스 뮤지컬로, 1999년 영국 웨스트엔드에서 탄생한 이후 현재까지 **영국을 비롯 미국, 독일 프랑스 등 49개 프로덕션, 440개 주요도시에서 6,000만 명 이상의 관객을 동원**하며, 20억 불 이상의 티켓 판매고를 올리고 있는 전세계 메가 히트 (Mega Hit) 뮤지컬이다.

**목 차**

1. **공연개요** ………………………………………………………………………………………………………………………… 4
2. **ABOUT 뮤지컬 <맘마미아!>** ……………………………………………….……………………………………… 5

1> 뮤지컬 <맘마미아!> 는 어떤 작품인가?

2> 새로운 감각을 일깨워준 <맘마미아!> 무대 매커니즘

1. **화려한 귀환, 2016 뮤지컬 <맘마미아!>**  ……………………………………………….………..…….. 8
2. **뮤지컬 <맘마미아!> HISTORY in KOREA!** ……………………………………………….………..……. 9
3. **뮤지컬 <맘마미아!> SYNOPSIS** ……………………………………………….………..………………………. 12

**<첨부>**

* **뮤지컬 <맘마미아!> 영광의 얼굴들** .………….……………………………………………....……. 13
* **뮤지컬 <맘마미아!> 스태프 프로필** ……………………………………………………………..…. 28

**뮤지컬 <맘마미아!> 홍보 담당**

• 장유진 010.5149.0806 / 070.4619.2812 / [jyj@iseensee.com](mailto:jyj@iseensee.com)

• 박지현 010.8653.0578 / 070.4619.2824 / [jhpark@iseensee.com](mailto:jhpark@iseensee.com)

**웹하드:** [**www.webhard.co.kr**](http://www.webhard.co.kr) **/ 아이디: seensee1 / 비밀번호: 1234 / 뮤지컬 <맘마미아> 폴더**

1. **공연 개요**

**\* 공연일자:** 2016년 2월 24일(수) ~ 6월 4일(토)

**\* 공연시간:** 화~금 8시 | 토/일 2시, 7시 (월 공연 없음)

**\* 공연장소:** 샤롯데씨어터

**\* 티켓가격:** VIP 14만원 | R석 11만원 | S석 8만원 | A석 6만원 (문의: 인터파크 1544-1555)

**\* 관람등급:** 미취학 아동 입장 불가

**\* 출 연:** 도나 - **최정원, 신영숙** | 타냐 - **전수경, 김영주** | 로지 - **이경미, 홍지민**

소피 - **박지연, 서현, 김금나** | 샘 - **남경주, 성기윤** | 해리 - **이현우, 정의욱**

빌 - **오세준, 호산** | 스카이 - **심건우** | 에디 - **구준모** | 페퍼 - **전호준, 유승엽**

알리 - **김다경** | 리사 - **서유라** | **길현주** | **이승일** | **정설웅** | **이호진** | **권성구** | **신지섭**

**전찬욱** | **유환** | **이수영** | **나아름** | **고은선** | **김지현** | **김아람** | **최희재** | **이상아** | **최하은**

**\* 스 태 프:** 연출 - **폴 게링턴** **(Paul Garrington)**

음악감독 – **션 알더킹** **(Seann Alderking)**

안무 – **리아 수 모랜드** **(Leah Sue Morland)**

국내 협력 연출 – **이재은**

국내 협력 음악감독 - **김문정**

국내 협력 안무 - **황현정**

**\* 주 최:** 신시컴퍼니, SBS

**\* 제 작:** 신시컴퍼니, 롯데엔터테인먼트

**\* 제작투자:** 인터파크

1. **ABOUT 뮤지컬 <맘마미아!>**
2. **뮤지컬 <맘마미아!>는 어떤 작품인가?**

* **뮤지컬 <맘마미아!> 의 탄생**

뮤지컬 <맘마미아!>는 프로듀서 쥬디 크레이머(Judy Craymer)의 참신한 발상에서 시작되었다. 팀 라이스(Tim Rice) 프로덕션에서 프로듀서로 일하던 쥬디 크레이머는 뮤지컬 체스 <Chess>를 제작하면서 전설적 그룹 아바 (ABBA)의 멤버 베니 엔더슨(Benny Andersson)과 비욘 울바우스(Björn Ulvaeus)와 처음 인연을 맺는다. 1989년, 세계적 히트를 구가하고 있는 그들의 음악성에 주목한 쥬디는 베니와 비욘에게 아바 (ABBA)의 노래를 엮어 뮤지컬을 만들 것을 제안하고, 1994년 마침내 새로운 뮤지컬 <맘마미아!>의 신화가 탄생하게 된다. 영국 극작가상을 수상한 경력이 있는 캐서린 존슨(Catherine Johnson)과 오페라와 연극에 풍부한 경험이 있는 필리다 로이드(Phyllida Lloyd)연출, 쥬디 크레이머의 기획으로 각본, 연출, 기획 모두가 동갑내기 여성으로 구성된 독특한 뮤지컬 <맘마미아!> 는 팝 그룹 아바 (ABBA)의 명성만큼이나 대단한 힘을 발휘하면서 오늘 이 시대를 이끌어가는 21세기 뮤지컬의 대명사로 자리잡았다.

* **웨버와 맥킨토시의 신화를 넘어선 세계 최고 흥행작**

뮤지컬 <맘마미아!> 가 오늘날 세계 뮤지컬 시장에서 엄청난 영향력을 발휘 할 수 있었던 것은 새로운 롱런 뮤지컬을 기다리고 있던 때에 웨버나 맥킨토시의 주류가 아닌 이른바 비주류에서 빚어낸 롱런 신화였기 때문이다.

1990년대 초반, 뉴욕과 런던에서 <캣츠>와 <미스 사이공>등의 작품이 하나 둘씩 막을 내리면서 이 뒤를 이을 신작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특히, 런던의 경우 1960년대 고전작품의 리바이벌만이 활발해 지면서 지루한 공황기를 겪는다. 1999년 4월 6일 런던 프린스 에드워드 극장 (Prince Edward Theatre)에서 초연된 뮤지컬 <맘마미아!> 는 미처 상상할 수 없었던 큰 성공을 거두며 런던 뮤지컬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는다. 오프닝 이후, 박스 오피스 기록을 연일 갱신하며 입석까지 매진되는 사태가 벌어졌고 데일리메일은 “뮤지컬 <맘마미아!> 는 <오페라의 유령>과 <레미제라블>의 뒤를 잇는 최고의 히트작”으로 평가했다.

<맘마미아!>의 성공행진은 미국으로 건너가면서 더욱 불이 붙는다. 2001년 10월 <캣츠>가 막을 내린 뉴욕의 윈터가든 (Winter Garden Theatre)극장에서 공연중인 이 공연은 브로드웨이 초연 당시 9.11 테러의 영향에도 불구하고 객석점유율 99%를 올리며 초토화된 미국 공연시장에 불을 붙이며 그 저력을 과시하였다.

1. **새로운 감각을 일깨워준 <맘마미아!> 무대**

* **최첨단 기술로 만들어진 심플한 무대**

<맘마미아!> 한국 공연의 무대는 <오페라의 유령>, <레미제라블> 등 세계 유수의 뮤지컬 무대가 모두 거쳐간 독보적 무대 제작소 AFCT (Adelaide Festival Centre Trust)에서 만들어졌다. <맘마미아!>의 무대는 얼핏 간결하고 단조로워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세련되고 세심한 첨단 기술력이 응축되어 있다.

먼저, 대형 축을 이용해 전환되는 무대는 일반적인 무대 전환 시 발생했던 소음을 없앴다. 또한 <맘마미아!>의 S자와 U자형 레일을 따라 움직이는 독특한 무대는 그 동안 우리가 보아왔던 상하 좌우나 원형무대의 단조로운 움직임보다 훨씬 다양한 각도로의 전환을 용이케 하며, 공간적으로나 시간적으로 효과적인 전환이 가능하다. 때문에, 아바 (ABBA) 음악의 빠른 템포에 어울리는 속도감 있는 무대전환으로 관객들은 지루함을 느낄 새가 없으며, 연출의 폭을 보다 넓힐 수 있는 큰 장점을 가지고 있다.

* **아바 (ABBA) 음악의 진수를 들려줄 음향**

<맘마미아!> 프로덕션이 추구하는 음향의 수준은 기존 뮤지컬 계의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것으로 유명하다. 음향장비들의 설치 완료 후 스피커 위에 연필을 굴려 울림이나 설치상태를 확인해볼 정도로 까다로운 아바 (ABBA) 멤버(베니, 비욘)들이 자신들의 음악을 관객들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해줄 수 있는 최고의 수준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이 명성에 걸맞게 한국 공연에 사용될 음향 설비의 물량은 국내 일반 뮤지컬들이 사용해온 양의 10배가 넘는다. 특히 기존 뮤지컬 무대에서 사용되지 않은 고가의 장비들이 설치되는데 이는 상암 운동장에 설치하여도 훌륭할 만큼의 퀄리티를 자랑한다.

<맘마미아!> 음향 장비들은 유명 뮤지션들의 일류 팝 공연에만 사용되어 온 장비로 야외 록 콘서트 수준의 음향을 균일하게 전달한 전달하게 될 스피커와 당일 음향 오퍼레이터의 조작 상황에 관계 없이 시종일관 안정적인 음향 수준을 유지시킨다. 이는 아바 (ABBA)의 콘서트를 연상시키는 <맘마미아!>의 커튼콜에서 모든 관객이 노래하고 춤추는 기립행진을 이어가는 데에 빠질 수 없는 필수 품목들이다. 모든 관객들은 <맘마미아!>의 공연장에서 뼛속까지 파고드는 음악을 몸으로, 가슴으로 느낄 수 있을 것이다.

* **최신 장비가 뿜어내는 빛으로 빚어진 꿈의 섬**

<맘마미아!>를 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온통 쪽빛의 무대, 잔잔한 물결이 넘실대는듯한 아름다운 그리스 섬에서 주인공 소피가 I Have A Dream을 부르는 첫 장면을 기억할 것이다. 마치 관객 들로 하여금 휴양지에 와있는 것과 같은 착각을 불러일으킬 정도로 아름다운 그리스의 풍광을 만들어낸 것은 <맘마미아!>에 사용된 특수 조명들이다. <맘마미아!>의 조명은 최신 디지털 장비들을 통해 현실적인 자연광과 같은 느낌을 추구하는 동시에, 이국의 정취를 표현하는 뛰어난 감각을 함께 보여주고 있다. 극 중 시간의 흐름까지 조명으로 표현해내며 현실감을 극대화시켜 줄 디지털 조명기와 콘서트 현장에서만 주로 사용되어온 VARI 무빙라이트는 순간적으로 빠르게 움직이는 장점을 통해 화려한 조명의 진수를 보여주어 특히 성대한 커튼콜에서 진가를 보여준다. 그 밖에도 <맘마미아!> 만을 위해 특수 주문 생산되는 차광판 등 장비의 종류와 그 가짓수만으로도 혀를 내두르게 하는 이 수많은 특수 조명기들은 <맘마미아!> 만의 독특한 조명으로 관객들을 작품에 젖어 들게 하는 데 일익을 담당한다.

* **아바 (ABBA)의 전성기를 연상케 하는 화려한 ‘수퍼 트루퍼 (SUPER TROUPER) 의상’**

뮤지컬 <맘마미아!> 한국공연을 위해 특별히 제작된 220벌의 의상과 155 켤레의 신발은 국내 뮤지컬들의 의상을 담당자들이 뽑은 ‘최고의 품질과 섬세함이 배어있는 명품중의 명품 의상’이라는 찬사를 받았다.

<맘마미아!>의 의상들은 무대 위, 조명 아래에서는 물론 가까이서 봐도 감탄할 정도의 고급 원단들로 의상 담당자들이 한국과 영국, 호주 등의 원단 시장을 직접 누비며 공수해와 100% 국내에서 제작되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화려한 의상인 ‘수퍼 트루퍼 (Super Trouper) 의상’은 옛 추억을 떠올리며 즐거워하는 도나와 그의 친구들의 화려했던 과거를 상징함과 동시에 아바 (ABBA)가 한창 활동하던 시절의 다소 촌스러우면서도 혁신적이었던 의상을 떠올리게 하여 관객들에게 즐거움을 준다. 순수 재료비만 벌당 200만원에 달하는 이 의상은 수작업으로 1,500~2,800개에 이르는 값비싼 보석들이 장식되는데 이 중 수백 개는 놀랍게도 최고급 명품 쥬얼리인 스와로브스키를 사용, 조명의 각도에 구애 받지 않고 항상 아름다운 빛을 발하도록 세심한 정성을 쏟았다.

* **한국어로 새롭게 탄생한 아바 (ABBA) 음악**

뮤지컬 <맘마미아!> 의 성공요인 중 하나는 바로 관객을 집중시킬 수 있었던 한국어로 번안된 아바 (ABBA)의 노래들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여러 매체를 통해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는 아바 (ABBA)의 음악은 오랜 시간이 흐른 지금까지 범국민적인 인기를 누리고 있다. 그와 더불어 총 22곡 중 단 한 단어의 가사만 공연에 맞게 바꾸고 모두 원래의 가사 그대로 사용되었지만 절묘하게 스토리와 맞아떨어지는 가사야말로 <맘마미아!>의 진정한 매력으로 손꼽힌다.

한국 제작팀은 오랜 작업을 거쳐 원곡의 느낌을 최대한 살리고 노래의 의미를 가장 잘 파악할 수 있는 한국어 번역에 힘을 쏟았다. 오랜 번역과 역번역 작업을 통해 한국과 영국의 <맘마미아!> 전문가들이 감수한 한국가사는 아바 (ABBA)의 음악이 주는 느낌을 최대한 살리면서 작품의 내용과 잘 맞아 떨어지는 좋은 가사로 인정받았다. 그 한 예로 도나와 친구들이 지난 가수 시절을 되새기며 신나게 부르는 노래 ‘댄싱퀸 (Dancing Queen)’을 들 수 있다.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노래인 만큼 귀에 익숙한 영어들이지만 공연을 통해 이 곡의 내용이 “신나게, 즐겨봐, 인생은 멋진거야, 우~ 기억해 넌 정말, 최고의 댄싱퀸.” 이라는 내용으로 귀에 꽂히고 이 공연의 드라마를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이를 통해 관객들은 그 동안 뜻도 모른 채 흥얼거렸던 가사들이 가진 의미를 새롭게 발견하게 되고, 드라마와 함께 기가 막히게 들어맞는 노래 속에서 웃음과 눈물을 흘렸다.

1. **화려한 귀환, 2016 뮤지컬 <맘마미아!>**

* **그 누구도 예외 없었던 오디션, 2016년 <맘마미아!> 를 책임질 영광의 주인공!**

2004년 초연부터 한국 <맘마미아!> 의 역사를 함께한 오리지널 협력 연출 폴 게링턴과 안무 리아 수 모랜드 그리고 음악감독 션 알더킹이 심사위원으로 참여한 2016 뮤지컬 <맘마미아!> 오디션이 지난해 6월, 2주간 진행되었다. 이번 오디션에는 18세부터 55세까지 전 세대에 걸친 실력 있는 배우 1,200여명이 지원해 국민 뮤지컬이라는 타이틀을 다시 한번 증명해 보였다.

* **넘볼 수 없는 오리지널의 위엄!**

누구도 예외 없이 진행된 오디션! 원년멤버의 혜택이라곤 없었다.

최정원, 전수경, 이경미, 남경주, 이현우, 성기윤은 망설임 없이 오디션에 지원했고, 다른 배우들과 똑같은 과정을 거쳤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의 실력을 보란 듯이 보여줬고, 앞으로 펼쳐질 <맘마미아!> 의 아름다운 여정에 함께한다.

* **기다림은 끝났다! 신영숙, 김영주, 홍지민 새로운 주인공의 탄생!**

2004년 초연 이후 11년의 시간이 흘렀다. <맘마미아!> 한국 공연의 계보를 잇는다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여배우 3인방. 바로 신영숙(도나 역), 김영주(타냐 역), 홍지민(로지 역) 이다. 일찌감치 <맘마미아!> 차세대 주인공으로 언급되고 있었지만 어린 나이가 그들의 발목을 잡았다. 아름답고 개성 넘치는 중년의 배우로 자리매김한 이들은 오디션을 위해 내한한 해외 스태프 모두를 만족시키며 당당하게 합격했다. 2016년, 이제 그녀들을 기다린 팬들의 기다림은 끝났다!

* **소녀시대 서현, 오디션을 뚫고 당당히 합격. 소피로 지중해 푸른 빛을 더하다!**

한류대표 스타, 소녀시대의 서현이 소피로 낙점되었다. <맘마미아!> 오디션은 한류스타도 피해갈 수 없는 관문이었다. 그녀는 등장부터 밝은 에너지로 현장에 있는 모두를 무장해제 시켰다. 뿐만 아니라 오디션이지만 장면 몰입을 위해 엄마 일기장을 직접 준비해 오는 열의를 보이며 심사위원들을 사로잡았다. 그리고 350:1 의 경쟁률을 뚫고 당당히 <맘마미아!> 에 합류했다.

이 밖에도 신예 김금나가 박지연, 서현과 함께 소피로 낙점되었고 연극과 뮤지컬을 오가며 활발히 활동을 하고 있는 오세준과 호산이 빌 역으로, <맘마미아!> 초연에 에디로 출연했던 정의욱이 해리 역으로 함께한다. 특히 이 작품의 앙상블로 데뷔한 배우 심건우가 소피의 남자 스카이 역을 당당히 따냈다. 그리고 이들과 함께 구준모, 전호준, 유승엽 등 에너지 넘치고 실력있는 배우 20여명이 이 작품을 더욱 풍성하고 활력 \있게 만들며 매일 밤 <맘마미아!> 를 찾는 관객들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 것이다.

2016 뮤지컬 <맘마미아!> 는 관록 넘치는 원년 배우들을 필두로, 신선한 기운으로 장전된 새로운 얼굴들과 함께 또 한번 대한민국을 흥으로 무장시킬 ‘신 바람’을 예고하고 있다.

1. **뮤지컬 <맘마미아!> HISTORY in KOREA!**

* **2004년 한국초연 – 한국 뮤지컬 역사의 새 장을 열다**

2004년 114회 공연 기간, 85%의 객석 점유율, 최단시간 동안 20만 명 관객 동원, 140억원의 매출 등 2004년까지만 해도 생소한 작품이었던 뮤지컬 <맘마미아!>가 거둬들인 성과는 가히 대단했다. <오페라의 유령> 혹은 <캣츠> 등과 비교해 봤을 때 제목이 주는 인지도 면에서 일반인들에게 어필하기엔 다소 시간이 걸렸으나, 공연이 시작된 직후 작품의 대중성과 완성도에서 관객들은 폭발적으로 열광했고 공연 전에 비해 예매율이 4배까지 상승하며 흥행 신화를 만들어 나갔다.

티켓판매처인 티켓링크의 판매순위에서 공연기간 내내 한번도 1위를 놓치지 않았으며, 중년관객들이 대거 공연장을 찾아 총 객석의 50% 이상을 점유하는 기현상을 보이며 문화소외계층이었던 중년관객을 순식간에 문화주체 관객으로 탈바꿈시켰다.

* **2005년 대구공연 – 지방 공연문화의 전설로 남다**

2004년 서울에서 일어난 <맘마미아!> 돌풍은 2005년 대구까지 이어졌다.

1월부터 2개월간 공연된 대구공연은 지방공연 역사상 최장기간, 최다횟수의 공연이라는 점에서 한국 공연관계자들의 주목을 받았다. 대구에서의 총 57회 공연 동안 평균 객석점유율 87%, 6만 명의 관객이 관람하는 놀랄만한 기록을 세운 뮤지컬 <맘마미아!> 는 이미 대구에서 공연된 바 있는 뮤지컬 대작 <캣츠>나 <시카고>의 흥행성적을 훌쩍 뛰어넘는 성적을 보여주었다. 뿐만 아니라 지방공연의 특성상 단기 공연으로 이루어졌던 종전의 관행에서 벗어나 장기공연의 성공 가능성을 열었다는 점에서 의미를 지녔다.

* **2006년 서울 예술의전당 공연 – 대한민국 NO.1 뮤지컬로 자리잡다**

2006년 6월, 서울에서 다시 시작된 <맘마미아!>의 크나큰 성공은 공연이 끝나기 전 일찌감치 예견되었다. <맘마미아!> 는 티켓 오픈 첫날 5,000여장이 판매가 되고 공연이 시작된 후에는 하루 2~3000여장이 꾸준히 판매되었다. 총 성적은 107회의 공연 동안 객석점유율 97%, 공연이 끝나기 2주 전 티켓이 매진되며 146억 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이렇듯 <맘마미아!> 의 회오리 급의 열풍은 아스팔트를 녹이는 폭염과 연일 대서특필되던 폭우로 인한 수해의 아픔, 월드컵의 뜨거운 열기에도 아랑곳 하지 않았으며, 4대 뮤지컬 중 하나로 불리며 같은 시기에 공연되었던 뮤지컬 <미스사이공>의 막강한 화력을 잠재우기에 충분한 것이었다.

* **2007년 성남공연 – 최단기간 300회 공연, 최다 관객 50만 동원**

2006년 성공적인 서울공연에 힘입어 2007년 1월 성남 아트센터에서 앵콜 공연을 가진 <맘마미아!>는 성남이라는 지역적 한계와 공연 계의 최대 비수기인 1월 이라는 시간적 한계를 무색하게 만들었다. 특히 성남 공연에서는 한국 최고의 여배우 최정원이 박해미의 바통을 이어받아 3대 도나로 성공적인 무대를 가지며 뮤지컬 스타다운 면모를 유감없이 발휘, 열광적인 공연을 이끌었다. 또한 2007 성남 공연 중 2월 4일은 2004년 <맘마미아!> 한국 초연이래 최단기간인 300회 공연 동안, 최다관객 수인 50만을 돌파하며 새로운 기록을 세웠다.

* **2007 - 2008년 샤롯데씨어터 공연 – 관객과 혼연일체가 된 무대**

2007년 공연계 최고 이슈였던 샤롯데씨어터 차기작으로 선정된 뮤지컬 <맘마미아!>는 작품성과 대중성을 인정받은 쾌거로 기록되며 5개월간의 대장정 공연에 들어갔다. 무대와 객석간의 거리가 가까워진 샤롯데씨어터의 <맘마미아!> 공연은 제 3막이라 불리는 성대한 커튼콜과 함께 신바람을 몰고 오며 5개월간의 공연기간 동안 19만 명 관객을 모았고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대표 뮤지컬로 자리매김 하였다.

특히 샤롯데씨어터 <맘마미아!> 공연은 국내 최대 티켓 **예매사이트인 ‘인터파크’에서 선정한 ‘골든 티켓 작품상 대상’을 수상**하였다. 이 상은 뮤지컬, 연극, 콘서트 등 전 장르를 망라하여 가장 대중적으로 많은 사랑을 받고, 티켓판매가 가장 높았던 공연을 꼽는 상으로 유료티켓 판매수 그리고 인터넷 인기투표로 선정된다. 이렇게 ‘골든 티켓 작품상 대상’ 수상은 뮤지컬 <맘마미아!>의 작품성과 대중성을 겸비한 최고의 티켓 파워를 가진 작품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입증하는 계기가 되었다.

* **2009년 서울 국립극장 공연 – 영원히 깨질 것 같지 않은 성공신화**

1999년 영국 웨스트엔드에서 탄생한지 10주년을 맞은 뮤지컬 <맘마미아!> 는 200개 주요도시에서 매일 밤 공연되고 있으며 4000만 명이 넘는 관객이 관람하였고 20억불 이상의 티켓판매고를 올리며 전세계를 강타하고 있다. 이러한 성공신화는 한국에서도 이어져 2004년 초연 이후 지금까지 총 679회 공연 동안 약 100만 명의 관객을 모으며 ‘국민 뮤지컬’로 자리매김하였다. (2009년 기준)

전염성이 강한 이 흥행대작은 2008년 메릴스트립, 피어스 브로스넌, 콜린퍼스 주연의 영화로도 제작되어 <맘마미아!> 열풍에 불을 지폈다. 영화 개봉과 동시에 전세계 13개국 박스오피스 1위를 차지하였고 흥행수입도 5억 8천만불을 벌어들이며 세계 뮤지컬 영화사상 최고의 흥행성적을 기록하였다. 우리나라에서도 ‘4050 컬처족’ 이라고 불리는 중년관객층을 영화관으로 불러모으며 461만 명이라는 관객수를 기록, 역대 뮤지컬 영화사상 최고의 흥행기록을 세우며 <맘마미아!> 열풍을 이어갔다.

* **2010 - 2011년 지방투어 공연 – 100만 관객 돌파, 전국을 점령하다**

2005년 지방공연 역사상 최초, 최장기 공연을 성공적으로 치른바 있는 뮤지컬 <맘마미아!>는 2010년 5월 경기도 이천 공연을 시작으로 부산, 청주, 대전, 구미 등 2011년 4월 제주까지 약 1년 여간 23개 지역을 순회하며 100만 누적관객을 돌파하며 명실상부 대한민국 국민 뮤지컬임을 다시 한번 입증시켰다. 특히, 2010년 오디션을 통해 샘 역으로 새롭게 합류한 남경주는 도나 역의 최정원과 오랜 무대호흡을 자랑하듯 환상적인 공연을 선보였고, 국내 대형뮤지컬로는 이례적으로 지방 최장기 공연기간 동안 매 도시마다 객석을 가득 채우며 지역 뮤지컬 시장에 새로운 변화를 주도하였다.

* **2012년 서울 디큐브아트센터 공연 – 서울 서남권에서 계속된 흥행신화**

1000석 이상의 대형 공연장으로 처음 서남권에 개관한 디큐브아트센터에서 개막작으로 공연된 뮤지컬 <맘마미아!>의 성공은 누구도 쉽게 말할 수 없었다. 낯선 공연장 그리고 6개월이라는 공연기간은 쉽지 않은 도전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완성도 높은 공연과 뛰어난 공연장은 관객들을 만족시키며 성공의 견인차 역할을 했다.

뮤지컬 <맘마미아!>는 소위 말하는 아이돌 스타 한 명 없이 이루어진 성공으로 그 의미가 더 특별하다. 중년 배우들이 작품을 이끌어가는 뮤지컬 <맘마미아!>는 최정원, 전수경, 이경미, 성기윤 등 오랜 기간 이 작품을 함께해온 배우들의 하모니가 공연의 퀄리티를 높이며 관객의 만족도를 충족시켜주었다. 특히 최정원, 이경미, 성기윤, 박윤희는 단일 캐스트로 208회 공연을 모두 소화하며 무대에 대한 장인정신을 발휘하기도 하였다. 수준 높은 공연은 2011년 연말, 국내 최대 예매사이트 인터파크가 2011년 티켓누적 판매매수를 조사한 **‘올해 가장 많은 관객이 본 뮤지컬’로 <맘마미아!>가 선정**되는 쾌거를 이루었다.

* **2013 - 2014 서울 블루스퀘어 공연 – 영국 오리지널 팀 최초 내한공연!**

2004년 1월 뮤지컬 <맘마미아!> 의 역사적인 한국 초연이 이루어진 이후 10여년 동안 이 작품은 한국공연 역사상 최단기간 1200회 공연, 150만 관객을 돌파하는 흥행기록을 세우며 명실상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문화아이콘으로 자리잡았다. 그리고 10주년을 맞이해 한국 공연 최초로 영국 오리지널 공연팀을 초청, 그 의미를 더했다.

1. **뮤지컬 <맘마미아> SYNOPSIS**

무대는 그리스 지중해의 외딴 섬.젊은 날 한때 꿈 많던 아마츄어 그룹 리드싱어였으나 지금은 작은 모텔의 여주인이 된 도나(DONNA)와 그녀의 스무 살 난 딸 소피(SOPHIE)가 주인공이다. 도나의 보살핌 아래 홀로 성장해 온 소피는 약혼자 스카이(SKY)와의 결혼을 앞두고, 아빠를 찾고 싶어하던 중 엄마가 처녀 시절 쓴 일기장을 모래 훔쳐보게 된다. 그리고 그 안에서 찾은, 자신의 아버지일 가능성이 있는 세 명의 남자. 샘(SAM), 해리(HARRY), 빌(BILL)에게 엄마인 도나의 이름으로 초청장을 보내는데..

**뮤지컬 <맘마미아!> 영광의 얼굴들**

**중년의 여성도 섹시하다! 당당함과 아름다움을 겸비한 여인, 도나 (DONNA)**

**수식어가 필요 없는 그녀! 그 이름 하나로 충분하다! 최정원**

****

**내 아이의 사춘기, 그리고 엄마 최정원으로서 큰 의미를 가져다 준 <맘마미아!>**

저에게는 소피와 같은 또래 딸 아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맘마미아!> 가 좀 더 특별하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처음 <맘마미아!> 를 할 때에는 딸이 초등학생이었어요. 저는 바쁜 일정들로 책 한 권 읽어주기도 어려운 엄마였죠. 그런 제가 무대에서는 엄마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미안하고 고맙고, 뭐 그런 감정들로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고 보니, 딸 아이의 성장과 제가 엄마가 되는 과정을 모두 <맘마미아!> 와 함께 보냈네요. 작품 속 도나와 소피가 그랬던 것처럼 제 딸도 어느 순간 제 품을 떠나가겠죠. 그렇게 어른이 되어 엄마 없이 홀로 설 수 있는 나이가 될 것이고. 언젠가는 지금의 제 나이가 되어 다시 엄마가 필요할거예요. 그래요, <맘마미아!> 는 그렇게 엄마 최정원으로서 큰 의미를 가져다 준 작품입니다.

**[뮤지컬]** 유린타운/ 아가사/ 라카지/ 고스트/ 맘마미아!/ 시카고/ 안녕 프란체스카/ 소리도둑/ 프로듀서스/ 지킬앤하이드/ 갬블러/ 틱틱붐/ 캬바레/ 키스 미 케이트/ 듀엣/ 렌트/ 브로드웨이 42번가/ 사랑은 비를 타고/ 그리스   
**[연극]** 딸에게 보내는 편지/ 버자이너 모놀로그/ 피아프   
**[수상]** 2014 더 뮤지컬 어워즈 여우조연상/ 2010 한국뮤지컬대상 여우주연상/ 2001년 한국뮤지컬대상 여우주연상/ 1997 한국뮤지컬대상 인기스타상/ 1996 한국뮤지컬대상 여우 조연상/ 1995 한국뮤지컬대상 신인상

**그녀가 연기하는 배역이 스타가 된다! 캐릭터를 빛나게 하는 배우! 신영숙**



**“앞으로 당신이 좀더 나이가 들게 되면, <맘마미아!> 를 하게 될 거예요.”**

저는 평소 ‘행복’을 주는 작품을 좋아하는데, <맘마미아!>가 딱! 그런 작품이에요. 작품 안에 모든 것이 담겨 있지만 무겁지 않고, 객석 문 밖을 나가는 순간까지도 가슴 따듯함이 이어지는 작품이죠. 아바 (ABBA)의 음악은 말할 필요도 없고요. 제가 <맘마미아!>를 워낙 좋아하다 보니 배우로서도 꼭 해보고 싶은 작품이었습니다. 사실 5년 전 즈음 오디션을 본 적이 있어요. 당시에는 배역에 맞는 나이도 아니었기 때문에, ‘경험이나 해보자.’ 하는 심정으로 무작정 오디션에 지원했어요. 당연히 합격하지는 않았지만 해외 음악 감독이 그런 말을 했어요. “앞으로 당신이 좀더 나이가 들게 되면, <맘마미아!>를 하게 될 거에요.” 라고요. 그 말이 큰 힘이 되었고 <맘마미아!> 라는 꿈을 계속 갖게 되었죠. 그리고 5년 후, 오디션에 지원했습니다. 그 당시 해외 음악감독이 저를 알아보더라고요. 아마도 <맘마미아!>의 인연은 그 때부터였던 것 같아요. 꿈을 이루게 되어 기쁩니다.

**[뮤지컬]** 레베카/ 명성황후/ 팬텀/ 모차르트!/ 아가씨와 건달들/ 두 도시 이야기/ 황태자 루돌프/ 셜록홈즈/ 햄릿/ 코로네이션 볼/ 스팸어랏/ 로미오 앤 줄리엣/ 캣츠/ 나쁜 녀석들/ 헤어스프레이/ 시스터 소울/ 바람의 나라/ 이(爾)/ 태풍/ 사운드오브뮤직/ 대박

**[수상]** 2015 제 9회 딤프어워즈 올해스타상/ 2013 제7회 딤프 어워즈 올해의 스타상/ 2010 제4회 더 뮤지컬 어워즈 여우조연상

**그녀의 몸짓에 반하고, 그녀의 유머에 빠져든다. 타냐 (TANYA)**

**머리부터 발끝까지 ‘타냐’ 그 자체! 전수경**

****

**“처음부터 타냐와 닮았냐고요? 전혀요. 그러나, 지금 돌아보면 굉장히 ‘타냐 화’ 되지 않았나요?”**

제 인생에 터닝 포인트를 말하라고 하면, 그건 바로 <맘마미아!> 입니다. 이건, 뮤지컬 인생뿐만 아니라 개인적 인생에서도 잊지 못할 최고의 작품으로 손꼽을 수 있어요. 저는 밝은 이야기를 좋아해요. 제 삶도 마찬가지죠. 배우가 어두운 이야기의 공연을 장기간 하게 되면, 많이 아플 수 있어요. 몸도 마음도. 그런데 <맘마미아!> 처럼 밝고 유쾌하고 사랑이 넘치는 공연을 하게 되면, 많이 웃게 되죠. 음악만 들어도 가슴 설레잖아요. 제가 이렇게 유쾌한 타냐로 살아 온지도 10년이 넘었어요. 처음부터 제가 타냐와 닮았냐고요? 전혀요. 오히려 저의 성격은 도나와 로지 쪽에 가까웠어요. <맘마미아!>는 저를 굉장히 다른 사람으로 살게 해 준 작품이죠. 계속 그녀를 생각하면서 몸가짐이나 태도를 다져왔고, 지금 굉장히 ‘타냐 화’ 되지 않았나요?

개인적으로 <맘마미아!>를 하는 동안 힘든 일을 겪기도 했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이 작품을 통해 제 자신이 단단해졌어요. 정말 고마운 작품이에요.

**[뮤지컬]** 시카고/ 라카지/ 맘마미아!/ 캐치미 이프 유 캔/ 금발이 너무해/ 갬블러/ 더 라이프/ 메노포즈/ 애니/ 넌센스 잼보리/ 키스 미 케이트/ 렌트/ 아가씨와 건달들/ 라이프/ 브로드웨이 42번가/ 그리스/ 넌센스/ 코러스라인/ 사운드 오브 뮤직/ 웨스트 사이드 스토리/ 캣츠   
**[연극]** 급매 행복아파트 천사호/ 버자이너 모놀로그/ 사천의 착한 사람/ 러브레터   
**[수상]** 2002 제 8회 한국뮤지컬대상 여우주연상/ 1999 제 5회 한국뮤지컬대상 여우주연상/ 1997 제 3회 한국뮤지컬대상 여우조연상/ 1988 제 11회 MBC 대학가요제 동상

**독보적인 개성으로 무대를 장악하는 여제! 김영주**

****

**“제가 오디션 장에 나타나자마자 ‘타냐!’ 라고 말하더라고요.”**

<맘마미아!> 는 그냥 보는 그 자체만으로도 기쁘고 즐겁잖아요. 이렇게 즐거운 작품을 꼭 하고 싶었어요. 이제는 <맘마미아!> 의 타냐 역할을 맡아도 무리가 없을 나이가 된 것 같기도 하고요. <맘마미아!>를 정말 하고 싶어서 역할에 맞게 머리 스타일을 하고 드레스도 새로 구입해 오디션을 보러 갔습니다. 이건 제가 직접 말하기엔 좀 부끄럽지만, 제가 오디션 장에 나타나자마자 해외 스태프들이 “타냐!”라고 말하더라고요. 정말 기분 좋았어요. 그 덕분인지, 오랜만에 보는 오디션이었는데도 떨지 않고, 정말 즐겁게 보고 나왔죠. 이번 2016 <맘마미아!> 는 선배님들과 새롭게 합류하는 또래들로 신선한 <맘마미아!> 를 만들어보겠습니다. 저는 그러리라 확신해요. 믿고 많이들 보러 와 주세요.

**[뮤지컬]** 지저스 크라이스트 수퍼스타/ 마리 앙투아네트/ 위키드/ 하이스쿨뮤지컬/ 브로드웨이 42번가/ 광화문 연가/ 원효/ 아가씨와 건달들/ 몬테크리스토/ 톡식 히어로/ 아이 러브 유/ 햄릿/ 더 라이프/ 해어화/ 클로져 댄 에버/ 벽을 뚫는 남자/ 겨울나그네/ 하드락 카페/ 와이키키 브라더스/ 갬블러/ 카바레/ 유린타운/ 틱틱붐/ 키스 미 케이트/ 럭키루비/ 렌트/ 시카고/ 로마의 휴일/ 명성황후 외

**[연극]** 죠반니의 아버지로 가는 여행

**[수상]** 제 7회 한국뮤지컬 대상 여우신인상

**사랑은 쟁취하는 자의 것! 유쾌한 페미니스트, 로지 (ROSIE)**

**위풍당당, 대한민국 뮤지컬의 맏언니! 이경미**

****

**“제 이름을 ‘이 로지 (ROSIE)’로 바꿀까? 하는 생각도 했어요.”**

10년이 넘게 <맘마미아!>를 하면서, 저 역시 로지 처럼 많이 변한 것 같아요. 사실, 저의 원래 성격은 타냐와 비슷하거든요. 그런데, 정말 신기해요. 작품을 오래 하다 보니, 그 배역과 닮아가게 되더라고요. 처음에는 저와 너무 다른 로지의 캐릭터로 고민이 많았어요. 그런데 열심히 고민하고 연습하고 공연을 거듭하다 보니 제가 많이 변화했더라 구요. 우스꽝스러운 얘기인데요. 초반에는 제 이름을 ‘이 로지(ROSIE)’로 바꿀까? 하는 생각도 했어요. 그 정도로 캐릭터를 제 것으로 만들려고 노력했어요. 그 노력은 결과로 말해주는 것 같아요. 10년이 넘어 지금까지도 제가 이 역을 하고 있다는 걸 보면 알 수 있죠. 지금은 완전 로지가 되어, 성격도 털털해지고 생활 방식도 많이 바뀌었고요. 제 인생의 큰 전환점이자, 변화를 가져다 준 작품입니다. <맘마미아!> 는 정말 사랑할 수 밖에 없는 작품이에요.

**[뮤지컬]** 신데렐라/ 유린타운/ 라카지/ 모차르트!/ 맘마미아!/ 레베카/ 베로나의 두 신사/ 대장금 시즌2/ 대장금/ 찬스/ 메노포즈/ 가스펠/ 사랑의 노래가 들려오네/ 노틀담의 꼽추/ 사운드 오브 뮤직/ 캬바레/ 레미제라블/ 돈키호테/ 웨스트 사이드 스토리/ 그리스 외

**[연극]** 홀스또메르/ 피아프/ 버자이너 모놀로그/ 침향 외

**[영화]** 주문진/ 아나키스트

**[방송]** 마이캅/ 거침없이 하이킥/ 90일 사랑할 시간

**[앨범]** 거짓말이야/ 사랑은 개나 소나(거침없이 하이킥OST)

**[수상]** 2003 한국뮤지컬대상 여우조연상/ 1992 연극영화의 해 최우수 여우조연상

**유쾌한 에너지, 황홀한 가창력의 소유자! 홍지민**

****

**“<맘마미아!> 가 산후 우울증을 극복하는데 도움을 주었죠.”**

오랜만에 보는 오디션이었어요. 오디션을 본 이유 중 하나는 로지와 제가 똑! 닮았다’라는 점이었죠. 로지는 굉장히 열정적인 페미니스트예요. 하지만 파워 넘치는 겉모습 뒤에는 순수하고 아주 사랑스런 면이 있어요. 저도 그래요. 많은 분들이 저를 처음 보면 에너지 넘치고 강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저를 알아가다 보면 저의 러블리한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맘마미아!> 는 정말 많은 생각을 갖게 하는 작품인 것 같아요. 오디션을 볼 당시에, 아이를 출산하고 한 달이 안 되는 시점이었고 산후 우울증을 겪고 있었어요. 오디션을 준비하면서 무대에 컴백할 모습을 상상하며 아기 앞에서 노래를 불렀어요. 그러다 보니, 우울증도 자연스럽게 극복하게 되었고, <맘마미아!> 라는 작품을 좀 더 깊이 보게 되더라고요. <맘마미아!> 와 함께 할 수 있는 지금이 정말 행복합니다.

**[뮤지컬]** 신데렐라/ 브로드웨이 42번가/ 완전보험주식회사/ 내사랑 내곁에/ 아리랑 판타지/ 캣츠/메노포즈/ 넌센세이션/ 톡식히어로/ 샤우팅/ 드림걸즈/ 제너두/ 스위니토드/ 그리스/ 브루클린/ 행진! 와이키키 브라더스/ 록키호러쇼/ 풋루스/ 넌센스잼보리/ 루나틱/ 넌센스크래커 외

**[콘서트]** 바다, 홍지민 콘서트/ 홍지민&박완 뮤지컬 갈라 콘서트/ 3디바 뮤지컬 콘서트/ 아름다운 선물 시리즈/ 뮤지컬 토크콘서트 Who Am I/ 아침 음악 나들이2 홍지민 & 더뮤즈/ YTN 신춘 음악회/ 2013 커피콘서트 4 - 뮤지컬 메노포즈 갈라콘서트/ 홍지민의 톡톡 뮤지컬 콘서트/ 오케스트라가 드리는 최고의 행복/ 홍지민과 함께하는 집시 바이올린/ 한정림의 음악일기/ 3인 3색 효 디너콘서트/ 퓨전국악페스티벌/ 스프링 파티 외

**아빠를 찾고 싶은 상큼 발랄 소녀, 소피 (SHOPIE)**

**자타공인 뮤지컬 계의 빛나는 보석, 박지연**

****

**어쩌면 마지막이 될 박지연의 소피**

저에게 <맘마미아!> 는 정말 소중한 작품이에요. 2011년 이 작품으로 데뷔한 것이 제가 배우의 길을 걸어가는데 가장 큰 행운이 아니었나 싶어요. 기라성 같은 선배님들과 함께하며, 정말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었어요. <맘마미아!>를 통해, 저를 알리게 되었고, 그 후 여러 작품들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간 해온 작품들이 주로 우울하고 차분한 작품들이어서, 신나고 행복하고 즐거운 작품에 늘 목말라 있었어요. 그런 시점에 다시 <맘마미아!> 무대로 돌아올 수 있게 되어 너무나도 행복합니다. 20대 초반에, <맘마미아!>를 처음 만났는데 이제는 어느덧 결혼을 생각할 나이가 되었네요. 그리고 저의 20대를 <맘마미아!> 로 마무리 할 수 있게 되어 정말 기분이 좋아요. 한편으로는 제 인생에서 마지막으로 소피를 만나는 무대가 될 것 같아서 복잡한 기분이 들기도 합니다. 이번 무대에서는 좀더 성숙한 소피를 보여드리고 싶어요. 지금의 제가 가지고 있는 감정을 잘 버무려서, 행복한 공연 <맘마미아!>에 쏟아 붓도록 하겠습니다. 기대 많이 해주세요.

**[뮤지컬]** 원스/ 고스트/ 레미제라블/ 미남이시네요/ 맘마미아!

**[수상]** 2013 한국뮤지컬대상 여우신인상/ 2013 더뮤지컬어워즈 여우신인상

**[방송]** 오 나의 귀신님

**세계를 평정한 아이돌 가수를 넘어 여배우로 성장하고 있는 서현**

****

**공연을 위한 노력과 정성! 첫 시작부터 준비된 소피, 서현!**

<맘마미아!> 는 평소에 좋아하는 작품이었어요. 영화, 뮤지컬도 다 찾아봤고요. 정말 흥겨운 뮤지컬이잖아요. 너무 하고 싶었어요. 사실, 정식 뮤지컬 오디션은 처음이었어요. 떨리기도 했지만, 오디션을 정말 재미있게 준비했어요. 평소 좋아하던 <맘마미아!>의 노래들을 불러보고, 연습하다 보니 열정이 막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열심히 정성을 다하고 싶었어요.

**“엄마(도나)의 다이어리를 만들며, 오디션을 준비했어요. 재미있었어요.”**

오디션 보는 날에는 엄마(도나)의 다이어리 만들어왔어요. ‘엄마 다이어리는 어떻게 생겼을까?’ 궁금하더라고요. 제가 생각하는대로 일기장의 내용을 만들었어요. 만들다 보니, 소피를 알아가게 되고, 재미있더라고요. ‘꼭 붙어야 돼!’ 하는 마음보다, ‘와! 나한테 이런 기회가 왔네. 최선을 다해보자.’ 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재미있게 준비하다 보니 오디션도 즐기면서 볼 수 있었던 거 같아요. 정말 좋은 경험이 된 것 같아요. <맘마미아!> 라는 큰 작품을 할 수 있게 되어 영광스럽고, 이렇게 멋진 선배님들과 함께 하게 되어 더욱더 영광스럽습니다. 좋은 작품에 합류 한만큼 저의 몫을 해내겠습니다. 기대 많이 해주세요.

**[뮤지컬]** 해를 품은 달/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앨범]** Dear Santa/ Holler/ TWINKLE/ Lion He/ PARTY/ Mr.Mr./ I Got a Boy/ MR.TAXI/ The Boys/ 훗(HOOT)/ Run Devil Run/ Oh!/ 소원을 말해봐/ Gee/ 소녀시대/ 다시 만난 세계

**[드라마]** SBS 주말드라마 <열애>

**[방송]** MBC <우리 결혼했어요2>/ MBC <음악중심> MC 외

**혜성처럼 등장한 뉴 페이스, 김금나**

****

**내 인생의 첫 뮤지컬! 꿈의 무대에 오르다!**

뮤지컬 <맘마미아!> 는 제가 태어나서 처음 봤던 뮤지컬이에요. 아직까지도 그 때 보았던 공연이 기억 날만큼, 인상 깊게 보았어요. 그 이후로 뮤지컬 배우의 길을 걷게 되면서, <맘마미아!> 의 무대, 그리고 소피라는 역할이 제 마음 한 구석에 꿈으로 자리잡게 되었어요. 그러던 중, 오디션의 기회가 왔죠. 제가 이 작품의 오디션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만으로 기뻐서 그랬을까요? <맘마미아!> 오디션은 마치 오디션이 아닌 것처럼 정말 즐겁게 봤어요. 게다가 소피로서 무대에 설 수 있는 기회까지 찾아오다니! 정말 꿈만 같아요.

**‘김금나’만의 매력이 묻어난 사랑스러운 소피**

소피는 굉장히 쾌활하고, 당돌하고, 사랑스러운 많은 매력을 가진 친구예요. 그리고 20대 여성 뮤지컬 배우라면 누구나 꼭 해보고 싶은 캐릭터이기도 하고요. 그런 소피를 연기할 수 있는 기회가 온만큼, 김금나만의 매력이 묻어난 사랑스러운 소피를 보여드릴게요.

**[뮤지컬]** 신데렐라/ 체스/ 그리스/ 오 당신이 잠든 사이

**20년간 도나 만을 사랑해온 진정한 로맨티스트! 샘 (SAM)**

**대한민국 관객 모두가 사랑하는 뮤지컬 배우, 남경주**

****

**“샘(SAM)과 남경주는 ‘일편단심(一片丹心)’ 이잖아요!”**

제가 맡게 된 역할이 샘이라는 친구죠. 도나가 그리스에 멋진 집을 짓는데 영감을 주었던 옛 남자친구입니다. 건축을 전공했고 20년 전, 도나와 헤어진 이후에도 계속 도나를 생각하고 여전히 그녀를 좋아하고 있어요. 순정남이죠. 이런 점이 저랑 닮아 있는 것 같아요. 사람들은 항상 화려하고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직업에 있는 저를 보고 사랑에 있어서도 화려하고 반짝일 거라고 생각하지만, 전 샘과 같이 일편단심(一片丹心) 이죠. 그래서 <맘마미아!> 의 샘으로 더 몰입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상황들은 <맘마미아!> 속의 이야기이지만, 옛 여자친구와의 사랑을 그리워하고 2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녀를 생각하는 사람은 바로 남경주가 되는 거죠.

이번 시즌에는 기존의 배우들뿐만 아니라, 새롭게 합류하는 배우들이 많아요. 다들 믿을만한 배우들이죠. 팀워크는 정말 좋습니다. 작품은 말할 것도 없죠. 멋진 공연이 될 것 같습니다. 기대해주세요.

**[뮤지컬]**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라카지/ 위키드/ 넥스트 투 노멀/ 맘마미아!/ 브로드웨이 42번가/ 키스 미 케이트/ 시카고/ 벽을 뚫는 남자/ 에비타/ 아이 러브 유/ 크레이지 포 유/ 왕과 나/ Sing in the Rain/ 아가씨와 건달들/ 포비든 플래닛/ 갬블러/ 틱틱붐!/ 렌트/ 듀엣/ 더 라이프/ 그리스/ 웨스트 사이드 스토리/ 소리도둑/ 페퍼민트/ 사랑은 비를 타고/ 마지막 춤은 나와 함께/ 신비의 거울 속으로/ 시집 가는 날/ 달빛 나그네/ 춘향전 외

**[콘서트]** 국립 발레단과 함께하는 <남경주의 해설이 있는 발레>/ 한낮의 휴 콘서트/ joy of christmas 콘서트/ 11시 콘서트/ 남경주의 드림콘서트/ All That Musical/ 남경주와 함께하는 아주 특별한 크리스마스/ MBC 댄싱위드더스타 심사위원

**[앨범]** 42ND SUMMER PLAY/ In My Dream/ One Step

**[수상]** 2009 제 3회 대구국제뮤지컬페스티벌 올해의 스타상/ 2006 제 1회 대구국제뮤지컬페스티벌 인기스타상/ 1997 한국뮤지컬대상 남우주연상/ 1995~1997, 2003~2005 한국뮤지컬대상시상식 인기스타상 6회 수상/ 1997 제 3회 한국뮤지컬대상시상식 남우주연상/ 1995 제31회 백상예술대상 인기상

**묵묵히 한 길만을 걸어온, 그의 작품은 무조건 믿을 수 있다. 성기윤**

****

**“1,427회 공연을 마치고 1,428회 공연을 기다리고 있는 배우, 성기윤 입니다.”**

2004년 초연 당시, 30대 중반의 나이로 오디션을 보고 발탁된 이후, 제가 25년의 뮤지컬 인생 중 10여년의 시간을 <맘마미아!> 와 함께 했습니다. 지난 공연까지 1,427회의 공연을 마쳤고, 이제 1,428회 공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맘마미아!> 가 한국 캐스팅으로 5년만에 돌아왔고, 그 안에 제가 있습니다. 5년 동안 애타게 기다린만큼, 그 이상의 에너지가 공연을 통해서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한, 관객들도 많이 기다리셨을 텐데요. 이렇게 모두가 기다림의 시간을 가슴 속에 묻어두고 있었기 때문에, 서로 극장에서 만나게 되는 순간 엄청난 시너지가 만들어지리라 생각됩니다. 저는 지금까지 매 시즌을 똑같게 연기한 적이 없습니다. 조금씩 깊어지고, 인물의 나이에 다가갈수록 성숙해졌습니다. 이번 시즌 역시, 또 다른 샘을 만나보실 거에예. 그렇게 될 거고, 그렇게 만들겠습니다.

**[뮤지컬]** 유린타운/ 심야식당/ 고스트/ 맘마미아!/ 화선 김홍도/ 원효/ 금발이 너무해/ 남한산성/ 베로나의 두 신사/ 선덕여왕/ 퀴즈쇼/ 기발한 자살여행/ 시카고/ 듀엣/ 사운드 오브 뮤직/ 라스트 파이브 이어스/ 갬블러/ 렌트/ 더라이프/ 틱틱붐/ 키스 미 케이트/ 더 씽 어바웃 맨/ 아이다 외

**[수상]** 2009 제 4회 골든 티켓 어워즈 뮤지컬 남자배우상/ 2007 제 13회 한국뮤지컬대상 남우조연상

**모든 걸 가졌지만, 사랑은 서툰 남자 해리 (HARRY)**

**재미로 시작했지만, 이제는 누구보다 <맘마미아!>를 사랑하는 배우, 이현우**

****

**“<맘마미아!> 는 즐겁고 신나는 파티죠! 덤으로 선물까지 받은 것 같아 기분 좋네요.”**

2011년에 <맘마미아!> 와 처음 만나게 되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뮤지컬이라는 장르도 아직은 낯설었고, 장기 공연이었기 때문에 사실 결정을 내리기 쉽지 않았어요. 그런데 막상 시작하고 나니, 정말 시간이 훅! 지나가더라고요. 그리고 대사가 입에 붙고 무대가 편해지고 익숙해지다 보니 집중력이 좀 떨어졌던 거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끝나고 나서 아쉬움을 많이 느꼈어요. 5년이 지난 후, 또 다시 해리 역을 맡게 되었고, 이번에는 지난 시즌보다 잘할 것 같습니다. 아니, 잘하고 싶어요. 자신 있습니다. 이번엔 나만의 스타일로 몰입하고 표현하고 싶어요. 많은 작품을 한 것은 아니지만, <맘마미아!>처럼 즐겁고, 행복하고 기쁜 뮤지컬은 없는 것 같아요. 내용 자체가 결혼식, 그리고 파티잖아요. 이번에도 파티 같은 즐거운 경험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벌써부터 즐겁고 신나는 기분은, 파티에서 덤으로 선물 받은 기분 같네요.

**[뮤지컬]** 맘마미아!/ 싱글즈

**[앨범]** Take Me Home/ Till Dawm/ 정규앨범 1~10집 외

**[방송]** KBS 이현우 음악앨범/ TVN 수요미식회 외

**[수상]** 2012 제 11회 KBS 연예대상 라디오 DJ상/ 2004 MBC연기대상 TV MC부문 특별상

**10년 전 ‘에디’ 였던 그가 ‘해리’로 돌아왔다. 정의욱**

****

**“제게는 ‘행복한 추억’이었죠. 이젠 그 추억을 이어 붙여보려 합니다.”**

<맘마미아!> 초연 당시, 스카이의 친구인 ‘에디’ 역을 맡았었죠. 그랬던 제가 10여년이 흐른 지금, 소피의 아빠 후보 중 한 명인 해리 역할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정말 뭐라고 해야 할까요? 감회가 새롭다! 그 말이 딱! 맞는 것 같습니다. <맘마미아!> 는 제게 있어서 ‘행복한 추억’ 이었어요. 제가 지금까지 많은 작품들을 해왔지만, 생각해보면 이렇게 즐겁고, 걱정 근심 없이 행복하게 했던 작품이 있었나? 싶을 정도니까요. 12년 전 <맘마미아!> 라는 섬 안에서 즐겁고 행복한 시간을 보냈던 그 때가 그리워서 이 작품을 다시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함께 하게 되어 굉장히 기쁩니다. 또 다시, 행복한 추억을 이어갈 수 있어 그 또한 행복합니다.

**[뮤지컬]** 벽을 뚫는 남자/ 명성황후/ 영웅/ 심야식당/ 보이첵/ 광화문연가2/ 스칼렛 핌퍼넬/ 노이즈 오프/ 백치백치/ 두 메데아/ 뷰티풀 게임/ 오! 당신이 잠든 사이/ 드라큘라 더뮤지컬/ 달고나/ 매직 카펫 라이드/ 맘마미아!/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외

**세계를 여행하는 자유로운 영혼! 새롭게 찾아온 엉뚱한 사랑의 시작! 빌 (BILL)**

**후학양성에서 이제는 배우로 활동을 재개하다. 오세준**

****

**“오세준 표 행복 바이러스를 안겨드리고 싶습니다.”**

드디어, <맘마미아!> 와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아바 (ABBA)의 노래에서부터 작품의 내용 그리고, 즐겁고 행복하게 만드는 그 기운까지, <맘마미아!> 는 정말이지 꼭 하고 싶었던 공연입니다. 사실, 초연 때 오디션을 보기도 했었죠. 그 때는 아빠를 하기에는 어린 나이였기 때문에 다른 역할을 지원하긴 했었지만요.

빌이라는 인물은 수줍음도 많고,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는 않지만 나중에 아주 열정적인 사람임을 알 수 있죠. 글쓰기를 좋아하고, 여행가서 기록을 남기는 것도 좋아하는 면이 저랑 많이 비슷해요. 12년 동안 가지고 왔던 꿈이었기 때문에 그 열정을 모아 ‘오세준 표 행복 바이러스’를 관객 분들에게 전해 주고 싶습니다. <맘마미아!>의 가족이 되었으니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뮤지컬]** 안네 프랑크/ 의좋은 형제/ 암살자들/ 골목길 이야기/ 뒷골목 스토리/ 가스펠/ 헤어/ 프로포즈/ 벽을 뚫는 남자/ 어쌔신/ 크레이지 포 유/ 킹 앤 아이/ 아가씨와 건달들/ 테크노 피노키오/ 코러스 라인/ 명성황후/ 웨스트 사이드 스토리/ 사랑에 빠질 때/ 유논과 아보스/ 캬바레

**[연극]** 러브/ 레인맨/ …in the wall/ 졸업/ 아이시떼르/ 광수생각/ 교황청의 지하도/ 루브/ 불효자는 웁니다/ 박씨전/ 부활

**[영화]** 7번방의 선물 (뮤지컬 연출)

**연극으로 다져진 단단한 내공으로 뮤지컬에 첫 도전하다! 호산**

****

**“행복한 공연을 하고 싶었어요. <맘마미아!> 처럼요.”**

<맘마미아!> 는 제가 처음 도전하는 뮤지컬입니다. 예전에 뮤지컬 무대에 서고자 몇 번 시도한 적이 있었는데, 그 때마다 예상치 못한 일들이 생겨서 기회가 닿질 않았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배우 인생 처음으로 뮤지컬 무대에 서게 되었네요. 일단, 제가 <맘마미아!> 를 선택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나이를 한 살 두 살 먹어가면서, ‘정말 ‘행복한 공연’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신혼여행을 산토리니로 갔었거든요. <맘마미아!> 의 배경 역시 같고, 또 아바 (ABBA)의 음악을 좋아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과감히 도전했던 거죠. 그런데 제가 운이 좋았나 봅니다. 영광스럽게도 오디션에 합격 되었고, 좋은 작품에 훌륭한 스태프와 배우들과 함께 하게 되었네요. 이렇게 아름답고 꿈같은 작품을 음악과 춤으로, 그리고 무엇보다 뮤지컬이라는 장르로 관객들을 만나게 되어 기쁘고 영광스럽습니다.

**[연극]** 조씨고아, 복수의 씨앗/ 푸르른 날에/ 리어외전/ 칼로막베스/ 헤다 가블러/ 들소의 달/ 락희맨쇼/ 살/ 오장군의 발톱/ 마방진 쿵푸액션 춘성/ 강철왕/ 태수는 왜? 외

**[영화]** 역전의 날/ 무림여대생/ 판타스틱 자살 소동/ 파란 자전거/ 천년호/ 조폭 마누라2 - 돌아온 전설/ 청풍명월/ 킬러들의 수다

**[방송]** 드라마 <강이 되어 만나리>/ 드라마 <야인시대>

* **스카이 役 심건우**

**[뮤지컬]** 아리랑/ 드림걸즈/ 황태자 루돌프/ 고스트/ 스칼렛 핌퍼넬/ 락 오브 에이지/ 엘리자벳/ 조로/ 올댓재즈/ 키스 미 케이트/ 맘마미아!

**[연극]** 열두개의 성모상

**뮤지컬 <맘마미아!> 스태프 프로필**

* **연출 - 폴 게링턴 (Paul Garrington)**

폴 게링턴은 <맘마미아!> 인터내셔널 협력 연출이다. 로열 셰익스피어 컴퍼니의 프로덕션의 쇼에 연출로 많은 참여를 하였고 그 중 런던에서의 ‘비바 포에버’에도 참여하였고 유럽에서 <더티댄싱>과 <요셉>에도 참여하였다. 폴은 독일, 스웨덴, 중국, 네덜란드, 스페인, 러시아, 일본 그리고 한국에서 연출로 참여하였다.

* **음악감독 – 션 알더킹 (Seann Alderking)**

션 알더킹은 <맘마미아!> 협력음악 수퍼바이저 중 한 명이다. 뮤지컬 산업에서 존경을 받는 사람 중에 한 명이고 션은 필란드, 독일, 중국, 덴마크, 네덜란드, 스페인, 한국등의 뮤지컬 <맘마미아!> 작업에 참여했다.

* **안무 – 리아 수 모랜드 (Leah Sue Morland)**

리아 수 모랜드는 <맘마미아!> 협력안무 중의 한 명이다. 1999년 런던 오리지널 맘마미아 프로덕션의 댄서로서 발탁이 되었다. 리아 수는 중국, 덴마크, 오스트리아, 독일 그리고 한국에서의 <맘마미아!> 안무를 재 창조 하였다.

* **국내 협력 연출 – 이재은**

**[뮤지컬]** **연출** 유린타운 ┃ **국내연출** 헤어스프레이/ 키스 미 케이트 ┃ **조연출** 유린타운/ 맘마미아!/ 블러드 브라더스/ 렌트/ 갬블러(일본투어)/ 아이다/ 사운드 오브 뮤직/ 댄싱 섀도우/ 갬블러/ 자나돈트

**[연극]** **조연출** 피아프/ 푸르른 날에/ 아버지와 나와 홍매와

* **국내 협력 음악감독 - 김문정**

**[재직]** 한세대학교 공연예술학과 주임교수/ The M.C 오케스트라지휘자

**[음악감독/편곡/지휘]** 오케피/ 데스노트/ 원스/ 마리 앙투아네뜨/ 두도시이야기/ 레베카/ 광화문연가/ 엘리자벳/ 조로/ 모차르트/ 미스사이공/ 서편제/ 키스 미 케이트/ 영웅/ 맘마미아!/ 명성황후/ 맨 오브 라만차/ 내마음의 풍금(작곡)/ 로미오와 줄리엣/ 바람의 나라/ 러브/ 이블데드/ 뷰티풀게임/ 에비타/ 겨울연가/ 베이비/ 프로듀서스/ 피핀/ 가스펠/ 지저스 크라이스트 수퍼스타/ 몽유도원도/ 유린타운 / 틱틱붐/ 럭키루비/ 둘리/ 페임/ 렌트/ 시카고/ 코러스라인

**[작/편곡]** 내마음의 풍금/ 연극 아일랜드/ 프로젝트워크샵 도리안그레이 등 TV 드라마, 다큐멘터리, CM 등 작,편곡 활동

**[수상]** 제2,3,5,6회 뮤지컬 어워즈 음악감독상/ 제14회 한국뮤지컬대상 작곡상/ 제9회 YWCA 젊은지도자상

* **국내 협력 안무 - 황현정**

**[뮤지컬]** 맘마미아!/ 헤어스프레이/ 댄싱 섀도우/ 유린타운/ 렌트/ 갬블러/ 틱틱붐/ 럭키루비/ 키스 미 케이트/ 시카고/ 그리스/ 7인의 신부/ 사랑은 비를 타고/ 웨스트 사이드 스토리/ 레미제라블/ 코러스라인 외

**[연극]** 피아프/ 엄마를 부탁해

**[안무]** 미남이시네요/ 라스트 파이브 이어스/ 렌트(2004, 2009)/ 블더드 브라더스/ 듀엣/ 겜블러

**[협력안무]** 유린타운/ 원스/ 고스트/ 맘마미아!/ 키스 미 케이트

.